

예술의 한계



홍경안 역
시시일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는 1897년 4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비엔나공방으로 잘 알려진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아카데미와 역사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종합예술을 추구했던 그룹이면서 개혁운동이다.

빈 분리파하면 가장 먼저 클림트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카를 모저(Karl Moser) 등을 떠올리지만, 멤버 중에는 프란츠 세들라체크(Franz Sedlacek)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인물로, 유럽 미술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작가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세들라체크는 1891년 현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 당시 독일제국)에서 태어났으며 건축과 화학을 전공했다.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다. 1912년 린츠에서 열린 전시회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화풍의 안톤 루츠(Anton Lutz), 세밀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름을 떨친 클레멘스 브로쉬(Klemens Brosch) 등과 함께 린츠 기반의 예술 협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였다. 빈 분리파 정회원이 된 것은 1927년으로,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차갑게 현실을 묘사했던 신즉물주의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그는 흑백의 어둡고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알프레드 쿠빈(Alfred Kubin)과,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남긴 벨기에 작가 펠리시앙 요제프 빅토르 롱스(Felicien Joseph Victor Rops)와 비슷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두운 환상성을 공유한다. 세들라체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문법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불안 등을 기괴한 화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회비판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도망자(The Fugitive)>(1928), <황혼의 노래(Song in the twilight)>(1931), <나무 위의 유령들(Ghosts on a Tree)>(1933)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위의 유령들>이다. 이 작품은 달빛 비추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이한 형상들이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건을 쓴 듯, 독수리를 닮은 해골얼굴의 새 23마리가 나뭇가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구성이다.

앞사귀 하나 없는 나뭇가지는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한다. 유령 같은 존재들은 불길함의 기호요, 알 수 없는 세계 및 인간의 필멸을 암시하는 장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사회적 공포와 정치적 혼란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는 이와 유사한 주제를 자주 작품 속에 녹여냈고, <나무 위의 유령들>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미술평론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들의 걸어온 길 되돌아 봐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사실 왜곡, 짜깁기, 일방적 주장, 소송'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같은 단어로 정리된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듣고 있으면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죽을 각오로 양측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특히 MBK 연합은 기필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기자회견도 두차례 가량 진행하며 주주와 시장 여론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설득하고 있다.

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이 취임 후 회삿돈 수천억원을 신사업 투자라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지인과 친인척의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횡령과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투자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 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으며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의 부실경영을 문제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갔지만 흥플러스 사태가 터지며 역전되는 모습이다. 특히 MBK 파트너스의 주장을 신뢰했던 여론도 돌아서는 분위기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흥플러

스를 인수했지만 과도한 차입 경영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재했다. 또 흥플러스 인수에 성공하자 20여개의 점포를 팔아치우며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경영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투자 자본 회수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 또한 무시했다. 결국 MBK파트너스는 최근 흥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흥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등을 진행한 뒤 기업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8일로 다가왔다. 누가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그동안 양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7년생 운전에 속도 올리지 마라. 49년생 오후에 성과가 크다. 61년생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 7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85년생 남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38년생 사방에 적이 있어 일의 성사가 어렵다. 50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만. 62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4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86년생 바다 건너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39년생 티끌은 모아도 티끌에 불과하니 헛고성. 51년생 우물거에서 송농 찾지 말고 순서대로. 63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75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준다. 87년생 일이 잘 풀리니 겸손하여 보아야.



40년생 해산물을 먹을 때 주의해야. 5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64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성을 가는 사람이 있다. 76년생 싸움은 먼나라의 일이 아니다. 88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4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53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다. 65년생 불청객이 방문하니 마음이 불편. 77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술은 조심. 89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기쁜 하루.



42년생 힘든 일은 식구의 도움으로 해결. 54년생 원하던 곳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절히 기도. 66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78년생 호랑이띠 돼지띠와의 거래가 손조롭다. 90년생 가까운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43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55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67년생 동분서주 뛰어다녀도 소득은 별로. 79년생 서남쪽으로부터 온 친지의 도움을 받게 된다. 91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 나가라.



44년생 하찮은 격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56년생 공덕 없이 높은 대만 쳐다보면 어찌하나. 68년생 외출 시 이력서를 특히 조심해야. 80년생 믿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들킨다. 92년생 초치일관하여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5년생 슬픔은 깊게 담아 두지 마라. 57년생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69년생 옛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81년생 실수도 흐름에 따라 좋은 경험일 수 있다. 93년생 당장은 못 해도 마음을 집지 말고 꾸준히 노력.



46년생 강한 것은 약한 것이라 했는데. 58년생 지혜도 없는 주제에 운영한다고 큰소리 마라. 70년생 울다가 믿는 일에 다시 도전. 82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 비옥해진다. 94년생 남의 말은 사활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47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48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49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0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1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2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3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4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5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6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7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8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59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60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61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62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4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6			3
			8		9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할인도서

8	2	9	1	6	7
2	9	7	6	8	1
6	7	1	9	8	2
9	6	7	1	8	9
9	1	8	2	4	7
7	2	4	9	9	1
4	8	9	2	6	1
1	6	2	8	9	7
5	9	7	1	4	9

9	6	9	2	8	7
2	8	7	6	9	1
1	7	8	9	2	6
4	9	2	1	6	8
8	1	9	7	2	6
9	9	7	8	1	6
8	2	1	7	6	9
6	2	8	9	7	1
5	9	7	1	4	9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